



갈등이슈 지역에서 갈등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

최진하 (UNDP 금강습지사업관리단장)

1. 들어가며

자연자원을 매개로 하는 산업화의 급속한 확산과 도시화는 자연환경의 오염과 자연자원의 고갈문제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환경갈등이 점증하고 있다.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단순히 경제·사회·기술적 변화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한계가 있고 환경과 연계된 생·물리학적 변화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양자를 모두 수용하는 조화로운 정책을 추구해야하며 이에 따른 정책운용의 허용공간도 점차 제약·축소되고 있다(이정주, 2002). 따라서 폐기물매립장운영관리에 관한 정책허용공간도 단순한 경제적 효율의 논리에만 의존할 수 없고 환경문제, 기후변화협약, 자원화 등 환경관련규제나 시설입지에 따른 환경갈등 문제 등 사회적 압력에 따른 대처뿐만 아니라 환경 생태적 효율성이라는 기준도 충분히 고려하여 관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김용환, 2003). 자연의 희생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통적인 산업화에 대한 반성의 일환으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모색하고자 1987년 WCED(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에 의해 제안된 것이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다. WCED가 지속가능발전을 제안할 때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에 내포되어 있는 함의는 “경제발전과 자연보전의 조화의 목표”를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자연의 환경용량 범위 안에서의 발전이 이루어져야함을 함의한다. 그러나 WCED가 주창한 지속가능성 개념은 경제와 자연 자원 이용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단일차원 개념의 자연과 경제문제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소들까지 포괄한 개념으로 정립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¹⁾.

여기에서 지속가능사회로 가기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몇 가지 중요한 함의를 읽을 수 있다. 그동안 인류는 경제발전을 위해 지구의 한정된 자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해왔으며 경제행위에 뒤따르는 폐기물의 무분별한 배출은 인류의 생존문제까지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경제의 규모화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인종이나 국적, 그리고 계층과 지역, 소득수준을 가리지 않고 불평등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폐기물의 무분별한 배출과 이에 따른 환경적 불평등은 시설입지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시설가동이후에서도 지속적 혹은 단속적인 환경갈등을 유발한다. 때로는 지방정부간 혹은 지방정부와 지역주민간 갈등을 유발시켜 사회적 기회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사업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갖게 하여 지역사회의 정치·경제·문화 전반에 역반응을 나타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갈등이 고비용과 공동체파괴 및 분열을 조장하고 사회적 신뢰를 잃게 하는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갈등을 지역의 생산적 에너지로 변화시켜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제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그동안 비선호시설 입지로 인하여 발생하였던 환경갈등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와 더불어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관리기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하겠다.

1) 1990년대 중반 Ekins(1994), Harper(1996), Turner(1998), Rao(2000)등에 의해 지속가능사회의 달성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개념적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되고 있다. 첫째, 자연의 지속가능성은 발전에 필요한 자원공급, 자원추출 과정 및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정, 유통과정, 소비과정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고체 형태의 각종 폐기물 배출이 환경용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경제의 지속가능성은 인간의 물질적 및 문화적 풍요성과 생활의 편리성 증대를 위해 경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발전은 자연의 지속가능성 범위 안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기술은 생산활동에 적용되는 자원추출과정, 생산과정, 유통과정, 소비과정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과 처리 등에 필요한 청정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 사회구조는 계층간, 지역간 경제적 및 사회적 불평등이 생산 활동을 동기화하기 때문에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개선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정대연, 2002) 재인용.



2. 주민반발(NIMBY)의 특성

일반적으로 비선호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반발은 기동성(mobilization)이나 복잡성(complexity)등의 측면에서 일반적인 반대운동과는 매우 상이하다. 즉, 비선호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반발은 여권신장운동 등과 같은 일반적인 형평성운동과는 달리 지리적인 한정성과 부정적인 감정을 반영하기 때문에 주민반발의 기동성이 매우 신속하며, 기술·위험·환경·형평성·정치·경제 등과 같은 여러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성을 가지고 있으며 과학·기술·정책·민주주의 등이 문제와 관련된 다차원적인 특성(multi - dimensional character)을 지니고 있다.

1) 지역주민들의 내면적인 태도

지역주민들은 입지제의시설들이 어느 곳엔가는 반드시 입지되어야 할 편익제공시설이라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하여 시설입지 그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시 말해서, 해당 시설입지 인근 지역주민들은 정부 및 민간 사업추진자들과 마찬가지로 입지제의시설들(예컨대, 원자력발전소, 방사선폐기물처리시설, 장애자수용시설, 교도소, 쓰레기 매립 및 처리시설, 정유공장, 공항, 무주택을 위한 임시수용시설 등)이 사회전체에 이익을 제공하는 편익제공시설이라는 점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또한 어느 지역엔가는 반드시 입지되어야 할 시설들이라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하여 시설입지 그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만큼은 그러한 시설들의 입지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양면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NIMBY 라는 용어 그 자체 즉, 시설입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내 뜰 안에서 안 된다는 “OK, Not In My Back Yard”에 잘 반영되어 있다.

2) 시설의 부정적 외부성에 대한 반응

입지제의시설은 해당 입지지역사회가 수용 거부하는 기피시설이다. 왜냐하면, 입지제의시설들은 해당 입지지역사회로 하여금 사회적 비용을 감수케 하기 때문이다. 정부나 민간사업자 등과 같은 사업추진자들이 특정 지역에 입지시키고자



하는 시설들을 해당 입지지역사회에 사회적 비용을 집중시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입지제의시설들을 사회편익제공 및 공익실현에 이바지하는 공공시설로 규정하든 아니면 공익시설이 아닌 자본만을 위한 시설 즉, 비공공시설로 조명하든지 간에 이러한 입지제의시설들은 환경오염, 지역이미지 실추, 교통 혼잡, 건강위협, 재산적 가치하락, 공포감 조성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잠재적 시설입지 지역사회로 하여금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부정적 외부성(negative externalities)을 지니고 있다. 해당 시설입지 인근 지역주민들은 바로 이러한 입지제의시설의 부정적 외부성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설입지에 반발하게 된다.

3) 지리적 근접성 반영

입지제의시설들에 대한 주민반발은 지리적 근접성(geographical proximity)을 반영한다(Kraft & Clary, 1991; 류해운, 1995). 개개의 지역주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인근에 새로운 입지제의시설이 들어서게 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시설의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놓이게 되고, 따라서 자신을 비롯한 일부 소수의 해당 시설입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심리적-물리적 피해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지역주민들은 비선호시설의 지리적인 근접성으로 말미암아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믿게 된다. 비선호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반발은 바로 이러한 지리적 근접성 즉, 지리적 한정성을 반영함으로 발생되며, 이로 말미암아 지역적 편협성(parochialism)이나 지역보호주의(local protectionism)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4) 형평성에 대한 인식문제

비선호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반발은 형평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상의 문제이다(Gets & Walter, 1980). 즉, 비선호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반발은 바로 시설입지에 따른 비용-편익이 불균형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문제인 것이다.

어떤 특정 사안을 결정해야 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²⁾을 하게 된다. Etzioni(1982)에 의하면 이해당사자들은 편

2)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대체 안에 관해서 각각의 필요한 비용과 그것에 의해서 얻어진 편익을 비



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에는 그러한 사안을 수용하며, 그 반대인 경우에는 거부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주민들도 새로운 비선호시설의 입지제외에 대해 비용/편익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다. 비용/편익 분석시, 해당 시설 입지 지역주민들은 새로운 시설이 입지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혜택은 사회전체에 널리 분산되는 반면, 그 피해는 상대적으로 소수인 자신들에게만 집중된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유해한 것으로 비춰지는 특정 시설이 인근 거주 지역에 입지제의 될 경우, 해당 시설입지 인근 지역주민들은 특정 기술에 대한 지각을 변경 시키며, 그러한 기술의 위험과 편익에 대한 판단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비용/편익의 불균형에 대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지역주민들은 새로운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나게 된다. 즉, 지역주민들은 새로운 비선호시설을 자신들의 인근 거주 지역에 기꺼이 수용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물론 강력히 반발하게 된다. 이때 지역주민들의 비선호시설 입지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은 여러 형태로 현시되는 바, 공청회나 청원을 통한 반대의사표시 등과 같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반응에서부터 데모나 폭력행사 등과 같이 감정이 개입된 강력한 불법적인 반응에 이른다. 종국적으로 비선호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반발은 위험 및 비용의 불공정(inequity)에 대한 인식상의 문제로 귀결된다.

5) 이익들 간의 충돌과 마찰

비선호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반발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 즉 지역의 이익과 국익 간의 충돌로 평가하든 아니면 지역이익과 자본이익 간의 마찰로 조명하든지 간에, 하여튼 비선호시설 입지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주민반발은 이익들 간의 긴장과 대립으로 야기되는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비선호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반발문제를 부정적인 결과(예컨대, 지가하락, 환경오염, 교통 혼잡, 경관훼손 등)를 차단함으로써 지역이익을 보호하

교평가해서 채택여부 또는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에서는 소비된 자원의 실제비용과 그 편익으로서는 가치평가를 금액에 환산한 값을 이용해서 비교평가를 행한다. 비용편익 분석법은 한 사회 내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이 방법은 공공사업 타당성 검증의 방법론상의 장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비용편익 분석기법은 가능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법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를 배제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해당 비용과 편익 발생 항목들의 가치를 계량화하는 데에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용경제학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수단이다. 김동건(1997), 비용편익분석론, 서울, 박영사. 김홍배(2000), 비용편익분석론, 서울, 홍문사. 강근복(2000), 정책분석론, 서울, 대영문화사.



고자 하는 지역사회와 비선호시설 입지를 통해 공익(public interests), 즉 국익을 구현하고자 하는 국가 간의 충돌로 파악하든 또는 비용의 집중(costs concentration)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지역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와 시설입지 전략을 채택하여 비용을 특정 입지지역에 집중시킴으로써 비용의 최소화 와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자본 간의 마찰로 조명하든지 간에, 비선호 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반발은 제 이익들 간의 갈등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6) 과학기술과 관련된 고도로 합리적인 기획의 문제

비선호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반발은 고도로 합리적인 기획과 관련이 있다. 비선호시설들의 입지선정은 인간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정부나 민간사업자 등과 같은 사업추진자들은 일반적으로 전문기획가들과 과학기술자들의 도움으로 가장 바람직한 최적의 시설입지지역을 탐색한다. 이러한 경우에 비선호 시설의 입지지역으로서 가장 적절한 장소는 흔히 지리학, 지질학, 경제학, 인구통계학(예컨대, 인구밀도)등의 관점에서 매우 심도 있게 고려된다. 극단적인 경우에 과학기술적인 제 측면들과 관련된 기획이 심도 있게 우선적으로 고려됨으로 인해서 해당 입지지역사회가 시설입지선정에 관한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할 수 있으며, 정치적인 반대는 특정 지역이 여러 지역들 가운데 비선호시설의 입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지역으로 입증되었다는 주장으로 일축될 수도 있다.

7) 불확실성의 영역

Pitney(1984)는 비선호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반발은 불확실성의 영역 내에 있다고 보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나 위험폐기물처리시설 등과 같은 비선호시설 들의 입지에 대한 주민반발은 기술 운동(technology movement)으로서 형평성 운동(equity movement)과는 구별되며, 본질적으로 비가시적인 방사성물질이나 유독성 화학물질, 또는 기타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물질들의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논란과 관련이 있다. 새로운 시설입지와 관련하여 시설 그 자체는 얼마나 안전한가, 그러한 시설들에서 배출되는 물질들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과연 어느 정도



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가, 또한 그러한 물질들은 환경오염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등의 문제는 비선호시설의 입지사업추진들과 해당 입지지역주민들 및 환경단체사이에서 또는 전문기술자들이나 과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으로 자주 등장 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비선호시설 입지와 관련하여 위험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안전과 위험을 완벽하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듯 불확실성 그 자체는 비선호시설의 입지지역 주민들을 불안하게하고 과학적인 논란을 야기 시킨다.

8) 생산에서 비롯된 문제

비선호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반발은 근원적으로 생산과 관련이 있다. 새롭게 입지 제의되는 비선호시설 들은 생산을 위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며, 그러한 시설들의 입지는 곧 지속적인 생산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선호시설들의 입지에 대한 주민반발은 실제로 생산형태를 한정하는 사회적인 단계(social relation)로부터 도출된다. 다시 말해서, 비선호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반발은 재활용(recycling), 생산의 감량화, 생산 공정의 재편, 생산시설의 입지 등과 같은 여러 생산형태 가운데 생산시설의 입지라는 생산형태가 시설입지 지역사회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회 구조적인 관계에 의해서 결정됨으로써 야기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비선호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반발은 근원적으로 생산에서 기인한 문제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주민반발의 특성들을 고찰해 볼 때, 비선호시설 입지로 인한 주민 반발은 시설 그 자체보다는 시설의 입지에 대한 주민들의 견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민반발은 유해운(1997)의 정리대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으로 비춰지는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대한 해당지역주민들의 반응으로 볼 수 있다.



3. 갈등유형별 특징

1) 유형 I [넘비현상형]

유형 I 에 속한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 와 같다. 유형 I 에 속한 응답자는 총 30명 중에서 15명이었으며, 지역주민 7명, 환경단체 5명, 교수 2명, 대학원생 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유형 I에는 모든 주민들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형 I의 성격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즉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주민들로 선점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에 유형 I 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유형이라 볼 수 있다.

유형 I 의 구성원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진술문(표준점수 : +1.000이상)과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진술문(표준점수 : -1.000이하)은 <표 2> 과 같다. 유형 I 의 구성원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진술문은 ‘암사망자가 많아졌다’이었고, 그 다음으로 ‘후손에게 오염된 땅을 물려주는 것이 마음 아프다’와 ‘우리 마을에 매립장이 있는 것이 싫다’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진술문은 ‘폐기물운반 차량으로 소음이 있다’, ‘먼지가 많이 발생 한다’, ‘고소득 농업을 할 수 없다’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3> 은 유형 I 이 다른 유형에 비하여 절대 표준점수가 크게 나타난 진술문을 분석한 것이다. 유형 I 이 다른 유형에 비하여 더 강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진술문은 ‘암사망자가 많아졌다’, ‘후손에게 오염된 땅을 물려주는 것이 마음 아프다’, ‘기형아가 출생 한다’, ‘물고기가 사라져가고 있다’ 등이었고, 반면에 다른 유형에 비하여 더 강하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진술문은 ‘인근지역에 비하여 땅값이 싸다’, 폐기물운반 차량으로 소음이 있다’ 등이었다.

이와같이 유형 I 은 위생매립장으로 인하여 암 사망, 기형아 출산 등과 같은 치명적인 건강영향을 걱정하고 있었으며, 후손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인근지역에 매립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주민들의 심리적 태도와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유형 I 을 [넘비현상형]으로 명명하였다.



〈표 1〉 **넘비현상형 [유형 I] 에 속한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순위	표본번호	인자가중치	연령	성별	학력	소속	거주지
1	5	1.9583	58	남	중졸	주민	인근지역
2	4	1.9403	41	남	고졸	주민	인근지역
3	1	1.6216	63	남	국졸	주민	인근지역
4	6	1.5586	42	남	고졸	주민	인근지역
5	16	1.4830	43	남	고졸	환경단체	동일 군지역
6	30	1.4461	48	남	대학원졸	교수	타지역
7	3	1.3899	38	남	고졸	주민	인근지역
8	8	0.7462	43	여	중졸	주민	인근지역
9	2	0.7088	49	남	대재	주민	인근지역
10	23	0.6606	33	남	대졸	환경단체	동일 군지역
11	20	0.6447	39	남	대학원재	환경단체	타지역
12	21	0.6251	43	남	대학원졸	환경단체	동일 군지역
13	26	0.6251	39	남	대학원졸	교수	타지역
14	19	0.5582	30	남	대학원재	대학원생	타지역
15	15	0.5529	33	남	대졸	환경단체	타지역

〈표 2〉 **넘비현상형 [유형 I] 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술문**

Q-진술문	표준점수
1. 암사망자가 많아 졌다.	2.09
11. 후손에게 오염된 땅을 물려주는 것이 마음 아프다.	1.63
8. 우리 마을에 매립장이 있는 것이 싫다.	1.34
24.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다.	1.17
12. 오염된 물을 먹는 것 같아 불안하다.	1.17
14. 인근지역에 비하여 땅값이 싸다.	-1.10
17. 농가소득이 줄어든다.	-1.20
18. 고소득 농업을 할 수 없다.	-1.61
25. 먼지가 많이 발생한다.	-1.83
21. 폐기물운반 차량으로 소음이 있다.	-2.15



〈표 3〉 **넘비현상형 [유형 I] 과 다른 유형 사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술문의 비교**

Q-진술문	I 형	다른유형	차이
1. 암사망자가 많아 졌다.	2.086	-1.219	3.305
11. 후손에게 오염된 땅을 물려주는 것이 마음 아프다.	1.630	-.247	1.878
7. 기형아가 출생한다.	.353	-1.454	1.808
23. 물고기가 사라져가고 있다.	.839	-.961	1.800
30. 침출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경우가 있다.	.776	-.658	1.434
9. 고향을 떠날까봐 걱정된다.	.265	-.887	1.152
18. 고소득 농업을 할 수 없다.	-1.612	-.610	-1.002
2. 피부질환이 발생한다.	-.785	.356	-1.141
17. 농가소득이 줄어든다.	-1.198	-.038	-1.160
16.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314	1.085	-1.399
25. 먼지가 많이 발생한다.	-1.831	-.212	-1.619
21. 폐기물운반 차량으로 소음이 있다.	-2.153	-.034	-2.119
14. 인근지역에 비하여 땅값이 싸다.	-1.098	1.162	-2.260

2) 유형 II [관리책임형]

유형 II에 속하는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4〉 과 같다. 유형 II에 속한 응답자는 총 30명 중에서 9명이었으며, 공무원 7명, 교수 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유형 II에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형 II를 대표하는 사람, 즉 인자가중치가 높은 사람들이 공무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유형 II는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표 4〉 관리책임형[유형 II]에 속한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순위	표본번호	인자가중치	연령	성별	학력	소속	거주지
1	10	2.4354	35	남	대졸	공무원	동일 군지역
2	12	2.2806	36	남	대졸	공무원	동일 군지역
3	7	1.5825	38	남	대졸	공무원	동일 군지역
4	11	1.4755	47	남	대졸	공무원	동일 군지역
5	14	1.1366	51	남	고졸	공무원	동일 군지역
6	22	1.0643	37	남	대학원졸	교수	타지역
7	9	0.8709	34	남	대졸	공무원	동일 군지역
8	25	0.7506	40	남	대학원졸	교수	타지역
9	13	0.5679	35	남	대졸	공무원	동일 군지역

유형 II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술문(표준점수: +1.000이상)과 가장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진술문(표준점수: -1.000이하)은 〈표 IV-9〉와 같다. 유형 II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술문은 ‘우리 마을에 매립장이 있는 것이 싫다(표준점수 1.76)’이었고, 그 다음은 ‘건강에 해로울까봐 염려된다(표준점수 1.60)’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표준점수 1.57)’ ‘매립장으로 인한 피해보상이 없었다(표준점수 1.32)’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진술문은 ‘기형아가 출생한다(표준점수 -1.88)’ ‘침출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경우가 있다(표준점수 -1.80)’ ‘암사망자가 많아졌다(표준점수 1.70)’ ‘매립장에 산업쓰레기가 포함되어 있다(표준점수 -1.43)’ 등으로 나타났다.

〈표 6〉은 유형 III가 다른 유형에 비해 절대 표준점수가 크게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진술문을 분석한 결과이다. 유형 II이 다른 유형에 비하여 높은 차이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술문은 ‘우리 마을에 매립장이 있는 것이 싫다(차이점수 1.814)’ ‘군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차이점수 1.796)’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차이점수 1.429)’ 등이었고, 다른 유형에 비하여 높은 차이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진술문은 ‘침출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경우가 있다(차이점수 -2.426)’ ‘암사망자가 많아졌다(차이점수 -2.369)’ ‘기형아가 출생한다(차이점수 -1.537)’ ‘매립장에 산업쓰레기가 포함되어 있다(차이점수 -1.457)’ ‘악취가 심하다(차이점수 -1.349)’ 등이었다.

이와 같이 유형 II는 위생매립장에 의한 치명적인 건강영향에 대해서는 중요하



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고, 인근지역주민이 가질 수 있는 사회심리적인 불안 및 불편함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군청의 역할과 경제적인 지원 및 보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형 II를 [관리책임형]으로 명명하였다.

〈표 5〉 관리책임형 [유형 II]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술문

Q-진술문	표준점수
8. 우리 마을에 매립장이 있는 것이 싫다.	1.76
10. 건강에 해로울까봐 염려된다.	1.60
16.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1.57
32. 매립장으로 인한 피해보상이 없었다.	1.32
27. 처음부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1.10
31. 매립장으로 인한 피해조사를 소홀히 하였다.	1.04
12. 오염된 물을 먹는 것 같아 불안하다.	1.03
11. 후손에게 오염된 땅을 물려주는 것이 마음 아프다.	1.01
29. 매립장에 산업쓰레기가 포함되어 있다.	-1.43
1. 암사망자가 많아 졌다.	-1.70
30. 침출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경우가 있다.	-1.80
7. 기형아가 출생한다.	-1.88

〈표 6〉 관리책임형 [유형 II] 과 다른 유형 사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술문의 비교

Q-진술문	II형	다른유형	차이
8. 우리 마을에 매립장이 있는 것이 싫다.	1.757	-.056	1.814
26. 군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	.789	-1.008	1.796
16.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1.571	.143	1.429
10. 건강에 해로울까봐 염려된다.	1.601	.372	1.229
33. 매립장 관련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	.399	-.806	1.204
22. 마을 간의 갈등이 생긴다.	-.028	-1.155	1.127
3. 호흡기질환이 발생한다.	-.589	.538	-1.127
19. 악취가 심하다.	-.197	1.152	-1.349
29. 매립장에 산업쓰레기가 포함되어 있다.	-1.429	.027	-1.457
7. 기형아가 출생한다.	-1.876	-.339	-1.537
1. 암사망자가 많아 졌다.	-1.697	.672	-2.369
30. 침출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경우가 있다.	-1.798	.629	-2.426



3) 유형 III [환경염려형]

유형 III에 속하는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7> 과 같다. 유형 III에 속한 응답자는 총 30명 중에서 6명이었고, 교수 3명, 환경단체 2명, 대학원생 1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유형 III에는 주민과 공무원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생매립장에 대한 일반적(제3자)인 의견을 반영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표 7> 환경염려형[유형 III]에 속한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순위	표본번호	인자가중치	연령	성별	학력	소속	거주지
1	18	2.1550	26	여	대학원졸	대학원생	타지역
2	29	1.7737	40	남	대학원졸	교수	타지역
3	27	1.1945	50	여	대학원졸	교수	타지역
4	24	1.0697	29	남	대졸	환경단체	타지역
5	28	.8730	48	남	대학원졸	교수	타지역
6	17	.3196	30	여	고졸	환경단체	동일 군지역

유형 III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술문(표준점수 : +1.000이상)과 가장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진술문(표준점수 : -1.000이하)은 <표 8> 와 같다. 유형III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술문은 '인근지역에 비하여 땅값이 싸다(표준점수 1.68)' '악취가 심하다'(표준점수 1.68)' '피부질환이 발생한다(표준점수 1.41)' 등이고, 가장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진술문은 '고향을 떠날까봐 걱정된다'(표준점수 -2.03)' '마을사이에 갈등이 생긴다(표준점수 -1.64)' '후손에게 오염된 땅을 물려주는 것이 마음 아프다(표준점수 -1.50)' '우리 마을에 매립장이 있는 것이 싫다(표준점수 1.45)' '군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표준점수 -1.33)' '복토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표준점수 -1.30)' 등으로 나타났다.

<표 9> 은 유형 III이 다른 유형에 비해 절대 표준점수가 큰 차이로 나타난 진술문을 분석한 결과이다. 유형 III이 다른 유형에 비하여 높은 차이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술문은 '피부질환이 발생한다(차이점수 2.158)' '폐기물운반 차량으로 소음이 있다(차이점수 2.052)' '인근지역에 비하여 땅값이 싸다(차이점수 1.906)'



‘먼지가 많이 발생한다(차이점수 1.589)’ ‘악취가 심하다(차이점수 1.463)’ ‘호흡기 질환이 발생한다(차이점수 1.357)’ 등이었고, 다른 유형에 비하여 높은 차이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진술문은 ‘우리 마을에 매립장이 있는 것이 싫다(차이점수 -3.005)’ ‘후손에게 오염된 땅을 물려주는 것이 마음 아프다(차이점수 -2.821)’, ‘고향을 떠날까봐 걱정된다(차이점수 -2.286)’ ‘군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차이점수 -1.376)’ 등이었다.

이와 같이 유형 III은 위생매립장 환경문제와 관련된 사회심리적인 불안과 염려 등의 진술문보다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은 매립장과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환경염려형]이라고 명명하였다.

〈표 8〉 환경염려형 [유형 III] 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술문

Q-진술문	표준점수
14. 인근지역에 비하여 땅값이 싸다.	1.68
19. 악취가 심하다.	1.68
2. 피부질환이 발생한다.	1.41
24.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다.	1.08
3. 호흡기질환이 발생한다.	1.07
7. 기형아가 출생한다.	-1.03
23. 물고기가 사라져가고 있다.	-1.06
33. 매립장 관련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	-1.09
28. 복토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1.30
26. 군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	-1.33
8. 우리마을에 매립장이 있는 것이 싫다.	-1.45
11. 후손에게 오염된 땅을 물려주는 것이 마음 아프다.	-1.50
22. 마을 간의 갈등이 생긴다.	-1.64
9. 고향을 떠날까봐 걱정된다.	-2.03



〈표 9〉 환경염려형 [유형Ⅲ] 과 다른 유형사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술문의 비교

Q-진술문	Ⅲ형	다른유형	차이
2. 피부질환이 발생한다.	1.414	-.744	2.158
21. 폐기물운반 차량으로 소음이 있다.	.628	-1.424	2.052
14. 인근지역에 비하여 땅값이 싸다.	1.679	-.227	1.906
25. 먼지가 많이 발생한다.	.308	-1.281	1.589
19. 악취가 심하다.	1.677	.215	1.462
3. 호흡기질환이 발생한다.	1.067	-.290	1.357
6. 설사나 복통이 일어난다.	.288	-.906	1.193
17. 농가소득이 줄어든다.	.269	-.772	1.042
33. 매립장 관련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	-1.086	-.063	-1.023
23. 물고기가 사라져가고 있다.	-1.061	-.011	-1.051
10. 건강에 해로울까봐 염려된다.	-.043	1.194	-1.237
22. 마을 간의 갈등이 생긴다.	-1.641	-.348	-1.293
26. 군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	-1.326	.050	-1.376
9. 고향을 떠날까봐 걱정된다.	-2.027	.259	-2.286
11. 후손에게 오염된 땅을 물려주는 것이 마음 아프다.	-1.502	1.319	-2.821
8. 우리마을에 매립장이 있는 것이 싫다.	-1.455	1.550	-3.005

4. 갈등유형 사이의 비교

공통 평균점수가 낮은 것이 3개 유형들 사이에서 가장 일치하는 진술문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유형Ⅰ], [유형Ⅱ], [유형Ⅲ] 사이에서 공통 평균점수가 표준수준범위(± 1.0) 이내에 있는 진술문이 〈표 10〉와 같다. ‘머리가 아프다’(평균점수 -0.26), ‘속이 메스껍다’(평균점수 -0.33), ‘해충(파리) 때문에 위생상 문제가 많다’(평균점수 0.42) 등과 같이 위생매립장으로 인한 자각증상의 발생은 3개 유형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표 IV-14〉 유형사이에서 일치하는 진술문과 평균점수

Q-진술문	평균점수
27. 처음부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0.97
24.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다.	0.93
32. 매립장으로 인한 피해보상이 없었다.	0.89
12. 오염된 물을 먹는 것 같아 불안하다.	0.84
31. 매립장으로 인한 피해조사를 소홀히 하였다.	0.54
13. 대기 중에 오염물질이 있는 것 같아 불안하다.	0.51
20. 해충(파리)때문에 위생상 문제가 많다.	0.42
4. 머리가 아프다.	-0.26
5. 속이 메스껍다.	-0.33
28. 복토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0.93

〈표 III-15〉는 지금까지 위생매립장과 관련된 문제인식의 3가지 유형과 특성을 진술문의 영역과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 III-15〉 유형 사이의 종합 결과표

영역	진술문	유형 I (넘비형)	유형 II (관리형)	유형 III (환경형)	일치 문항
신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사망자가 많아 졌다. - 피부질환이 발생한다. - 호흡기질환이 발생한다. - 머리가 아프다. - 속이 메스껍다. - 설사나 복통이 일어난다. - 기형아가 출생한다. 	△△	▼▼	△△ △	≐ ≐
심리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마을에 매립장이 있는 것이 싫다. - 고향을 떠날까봐 걱정된다. - 건강에 해로울까봐 염려된다. - 후손에게 오염된 땅을 물려주는 것이 마음 아프다. - 오염된 물을 먹는 것 같아 불안하다. - 대기 중에 오염물질이 있는 것 같아 불안하다. - 마을 간의 갈등이 생긴다. 	△△ △△ △	△△ △△ △ △	▼▼ ▼▼ ▼▼ ▼▼	≐ ≐
경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지역에 비하여 땅값이 싸다. - 농작물이 오염되었다. -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 농가소득이 줄어든다. - 고소득 농업을 할 수 없다. 	▼ ▼ ▼▼	 △△	△△	
생활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취가 심하다. - 해충(파리)때문에 위생상 문제가 많다. - 폐기물운반 차량으로 소음이 있다. - 물고기가 사라져가고 있다. -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다. - 먼지가 많이 발생한다. 	▼▼ △ ▼▼		△△ ▼ △	≐ ≐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 - 처음부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 복토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 매립장에 산업쓰레기가 포함되어 있다. - 침출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경우가 있다. - 매립장으로 인한 피해조사를 소홀히 하였다. - 매립장으로 인한 피해보상이 없었다. - 매립장 관련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 		△ ▼▼ ▼▼ △ △△	▼▼ ▼▼ ▼	≐ ≐ ≐ ≐

△△ 높은 중요도 (1.3이상)

▼ 낮은 중요도 (-1.0미만)

≐ 비슷한 중요도(±1.0이내)

△ 높은 중요도 (1.0이상)

▼▼ 낮은 중요도 (-1.3미만)



5. 맺음말

- 제 I 유형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유형” 으로 입지시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건강영향을 걱정하고 있었으며, 후손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인근지역에 매립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주민들의 심리적 태도와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어 [넘비현상형]으로 명명하였다.
- 제 II 유형은 “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유형”으로 입지시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고, 인근 지역주민이 가질 수 있는 사회심리적인 불안 및 불편함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해당 지방정부의 역할과 경제적인 지원 및 보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관리책임형]이라 명명하였다.
- 제 III 유형은 “ 제3자적인 의견을 반영한 유형”으로 입지시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입지시설과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어서 [환경염려형]이라 명명하였다.



참 고 문 헌

[국내자료]

- 국회환경노동위원회(2005), '05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보고결과서, pp.18.
- 김도희(2002), 『쓰레기처리시설 입지갈등의 추진단계별 갈등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논집 제12권 1호, pp.87~104, 울산대학교.
- 김동진(1997), 《비용편의 분석론》 서울, 박영사.
- 김병완(1994), 《한국의 환경정책과 녹색운동》 서울, 나남신서.
- 김순은(1999), 『Q방법론의 이론적 배경과 비판적 고찰』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9권 제2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김애경(2003), 『여성의 입덧 경험에 대한 주관성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9권 제4호, pp.422~431. 여성건강간호학회.
- 김용웅·차미숙(1997), 『국토개발관련 분쟁의 발생 실태와 조정방안에 대한 연구』 pp.36~41, 국토개발연구원.
- 김헌수 원유미(2000), 《Q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 김홍규(1992), 『주관성(subjectivity)연구를 위한 Q방법론의 이해』 서울대학교 간호학논문집, 제6권 제1호 pp.1~12, 서울대학교.
- 류해운(1995), 『비선호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반발 요인에 관한 연구 -원자력관련시설입지를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태훈(1998), 『낙동강·위천공단의 환경 분쟁 해결방안』 정치학회 환경문제특별학술회의 발표논문, 외교안보연구원.
- 서천군(2006), 『ECOLAND 조성사업을 통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신뢰구축으로 갈등해결 사례』 서천군 환경보호과, 서천군.
- 이만형 외(1996), 『LULUs와 갈등관리 : 보상기준과 제약요인에 대한 모형구상』 국토계획, 제34권 제3호, 통권102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이진헌 외(2004), 《서천군 위생매립장 환경영향조사 환경오염 1차조사》, 공주대학교.
- 충청남도(2006), 《충청남도 폐기물통계》 충청남도.



[외국자료]

- Aitken, J. E.(1988), *Stephenson's Q-methodology. A Unique Tool for Research and Instruction*. Windsor, Ontario, Canada; Annual Meeting of the Canadian communication.
- Kerlinger. F. N.(1972), *A Q-validation of the Structure of Social Attitud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pp.32.
- Lee, J. H, Choi, J. H.(2006), Relative Risk Ratio of Residents Living Near the Municipal Solid Waste landfill Site at Some Province in South Korea, *Kor. J. Hlth.*, pp.240 ~ 248.
- Livson, N. H.& Nichols, T. F.(1956), Discrimination and Reliability in Q-sort Personality Descriptio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Vol. 52.
- Stephenson, W.(1953), *The study of behavior :Q- Technique and its method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CED(1987)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